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35
SEP 16 2022

발간년월 2022년 9월 16일(통권 제235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제7차 동방경제포럼 결과 총정리
- 중국, 러시아 LNG 반값에 싹쓸이
- 미국, '러시아가 북한탄약을 샀다'.
- 유럽, 러 대신 아제르產 가스 수입

주요 통계

- 2022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 EAEU 코드 기준 39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 EAEU 코드 기준 42~44



주요 동향



제7차 동방경제포럼 결과 총정리

그림.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 푸틴 대통령 연설 장면



자료: <https://www.bbc.com/russian/news-62150725>

■ 68개국 기업인과 언론사 대표 등 7000명 이상 포럼 참석

- 러시아 로스콘그레스(Roscongress) 재단이 주관하는 ‘제7회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F)’이 지난 9월 5일에서 8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교(FEFU) 캠퍼스에서 열렸음
 - 동방경제포럼(EEF)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통령령에 따라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포럼임. 2022년도 EEF의 주제는 ‘다극 체제로 가는 길’임
- 올해 포럼에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하여 약 700개 기업의 1,700명 이상의 대표들을 포함, 전 세계 68개국 및 각 지역에서 7000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특히 중국, 미얀마, 몽골, 인도,

아르메니아는 물론 알제리, 가나, 도미니카 공화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잠비아, 카메룬, 라이베리아 등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하였음

- 한국의 경우 예년과 다르게 고위급 인사가 아닌 주러시아 한국대사 관측 실무자가 소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푸틴 대통령,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할 중요성 강조

- EEF 본회의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과도정부 총리, 어용에르덴(Oyun-Erdene) 몽골 총리,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참석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서방의 대러 제재 영향, △식량 안보, △극동지역 발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서방의 제재 행위가 일종의 세계 질서를 서구 중심으로 유지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자칫 각 국가들이 안보·정치 및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을 할 우려가 있고, 전 세계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음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권에 있는 국가들의 역할이 커지며, 아태지역이 경제·기술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특히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들의 최근 GDP 성장률이 5%를 상회했다는 사실을 들어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서방의 대러제재 정책에 따르지 않고 있음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대러제재로 여러 서방 기업들과 러시아 기업 간 비즈니스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는 기존에 유럽을 비롯한 서구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며 확보했던 저렴한 원자재, 에너지 자원 및 넓은 판매 시장 등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유럽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부추겼다고 강조함

■ 비즈니스 포럼·러시아 북극이사회 의장국 행사 등 진행

- EEF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경제, △금융, △물류, △국제 관계,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6개 주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즈니스 세션들을 통해 러시아 연사들은 일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이 기술 개발 패권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이는 국제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태지역 국가들(중국, 인도, 베트남, 몽골 등)과의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음

- 이 밖에, 극동 지역 물류망 발전을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바이칼아무르철도(BAM) 개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관광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극동 지역이 아태지역 국적자들이 러시아 관광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허브지역이며, 러시아 국제 관광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음
- 더불어 현재 북극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러시아는 EEF 개최를 계기로 의장국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4가지 북극 주제 행사를 개최했음. 이는 △북극 투자 및 무역 컨퍼런스, △북극 경제 이사회 회의, △극동 및 북극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축 컨퍼런스, △북극 지역의 문화 발전 및 보존을 위한 문화 관련 컨퍼런스 등임

■ 행사기간 동안 총 296건(3조 2,720억 루블) 계약 체결

- 2022년 EEF를 통해 기록적인 수준의 투자 계약 및 MOU 체결 등이 이뤄졌는데, 특히 △인프라 및 운송 관련 프로젝트, △자원 부존지역 탐사 및 개발, △산업 및 농업 관련 분야 계약을 포함한 296건의 계약, 총 3조 2,720억 루블(미화 약 54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었음
- 로그콘그레스에 따르면, 산업별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 분야에서 80건,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 35건,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33건, △산업 및 건설 부문에서 29건, △투자 및 금융 분야 17건, △혁신 기술 및 통신기술 관련 부문 16건, △생태계 및 자연보호 관련 활동사업에 15건, △국제 협력 관련 15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https://forumvostok.ru/news/itogi-vi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2.9.15. 검색\)](https://forumvostok.ru/news/itogi-vi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2.9.15. 검색))
-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22/09/07/939640-plenarnoe-zasedanie-vef-2022\(2022.9.15. 검색\)](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22/09/07/939640-plenarnoe-zasedanie-vef-2022(2022.9.15. 검색))
-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9299\(2022.9.15. 검색\)](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9299(2022.9.15. 검색))

중국, 러시아 LNG 반값에 싹쓸이

그림. 러시아, 서방의 제재 이후 중국과 인도에 더 많은 에너지 수출



■ 중국의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2 LNG 수출 공장은 12월까지 중국에 납품할 LNG를 현재 현물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함. 올해는 세계 금리가 매우 치솟아, 절반 가격에 팔아도 러시아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이 같은 거래는 양국 모두에 이익을 안겨 주는데, 중국은 싸게 수입량을 확보하여 이를 다른 유럽과 아시아의 업체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음. 러시아는 계속해서 연료를 판매하여 이익을 낼 수 있음. 전통적으로 사할린 LNG는 주로 일본과 한국이 구매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래를 중단
-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의 사울 카보닉 에너지 분석가는 러시아 화물 수용에 문제가 없는 시장 참가자들을 통해 무역 흐름이 재편되면서 러시아 공급 물품이 여전히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중국은 러시아 LNG를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 더 높은 가격에 유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함
- 블룸버그가 입수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 중국의 러시아 LNG 수입은 2020년 이후 최대로 급증함. 한편, 중국 수입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유럽으로

화물을 돌리면서 미국에서의 수입물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음

■ 거래대금 결제는 루블화와 위안화로 전환

-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은 러시아와 중국이 가스 거래 비용을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이는 러시아가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달러, 유로, 기타 경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부. 가스프롬은 이 합의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언제부터 루블화와 위안화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러시아는 특히 탄화수소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국과 다른 비서구 국가들과 더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구축해 왔음
- 가스프롬 알렉세이 밀러 사장은 러시아 루블화와 중국 위안화 지불을 허용하는 것이 가스프롬과 중국 국영 석유 회사에 “상호 이익”이라 말함. 그는 이러한 변화가 다른 기업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며, 경제 발전에 자극을 줄 것이라 강조하였음
-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올해 초 유럽 수입업체에게 러시아 가스를 계속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가스프롬뱅크에서 루블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비용을 루블화로 지불하도록 강요함. 이 같은 거래 조건을 거부하는 일부 회사와 국가에 공급을 중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중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375억 달러 규모의 구매 연장 계약에 서명함. 푸틴은 2019년 말부터 3,000km의 Power of Siberia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세계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진정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며 환영하였음

참고자료

- a)<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9-08/china-snaps-up-half-price-russian-lng-as-europe-shuns-supplies?leadSource=verify%20wall>(2022.09.13. 검색)
- b)<https://edition.cnn.com/2022/09/06/energy/china-russian-gas-payments-ruble-yuan/index.html>(2022.09.13. 검색)

미국, ‘러시아가 북한 탄약을 샀다’.

그림. 대포를 실은 북한 화물열차



자료: NK뉴스, 2016년 7월

■ 러시아, 북한 탄약 구매 추진

- 최근 새로 공개된 미국 정보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에서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구매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전쟁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됨
- 미 국방부 대변인 팻 라이더 준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탄약을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러시아가 북한에 접근한 징후를 목격했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무기, 배송 시기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그는 정보 평가에 대한 첫 공개 논평에서 이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물류와 지속 능력 측면에서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러시아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전함
-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 자체가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말함. 미국 관료는 러시아가 앞으로 단거리 로켓과 포탄 외에도 북한 장비를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
-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의 효과는 부분적임 : 전쟁으로 상승한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 재무부의 배를 불리게 하였고, 국제 금융과 수출 및 수입 제재를 무디게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평가
- 그러나 미국 관료들은 러시아의 군사 재건 능력에 관해서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효

과적이었다고 자평.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무기 구매력을 저해한다고 주장

-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UN 대사는 미국 정보기관이 입수한 또 다른 가짜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면 부인하는 상황

■ 북러 철도 운행 재개 합의

- 러시아가 북한 탄약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가 공개된 후,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지난 2일 NK뉴스에 두만강과 하산을 경유하는 철도 연결을 통해 북한 탄약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선박 운송보다는 철도 운송을 더 선호할 것이라 설명
-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철도 운송을 재개하기로 합의.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기 화물운송 서비스를 폐쇄한 지 거의 3년 만에 이뤄짐. 9월 3일, 현지 언론은 신흥철 북한 대사와 올레크 코제미야코 연해주 주지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지난 4월 위성사진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에서 화물역 수리 작업을 재개한 사실이 드러나 두 나라의 무역 재개를 시사
- 이러한 합의는 알렉산드르 마세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면 기존에 합의한 두 나라를 잇는 도로 건설은 물론, 양국의 무역을 늘리고, 교류를 재개할 것이라 밝힌 지 며칠 만에 이뤄진 것임
-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초 러시아와의 10마일 길이의 국경을 폐쇄한 바 있으나,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만큼 북·러 동맹 강화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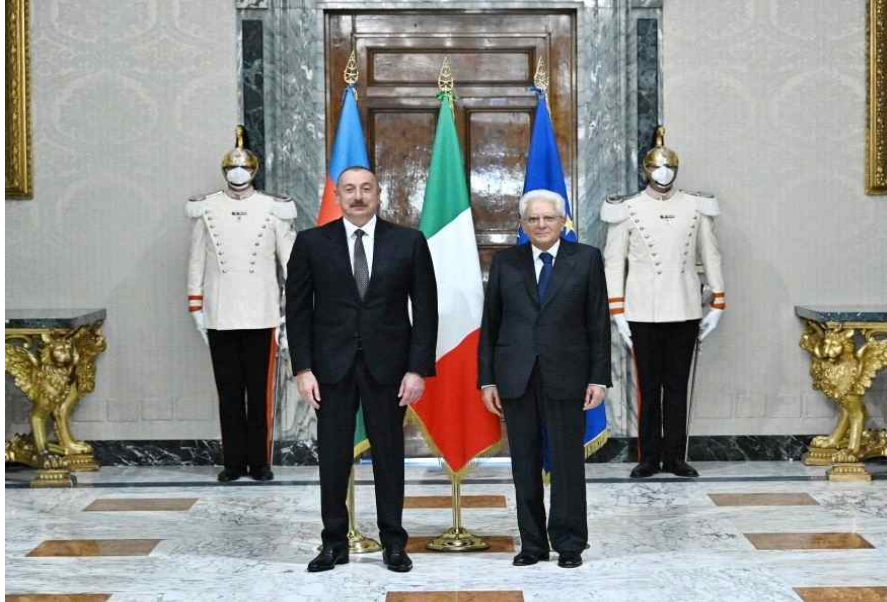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참고자료

- a)<https://www.nytimes.com/2022/09/05/us/politics/russia-north-korea-artillery.html?searchResultPosition=2>(2022.09.13. 검색)
- b)<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north-korea-government-and-politics-495e976d1217d38c397a16e79cc305de>(2022.09.13. 검색)
- c)<https://www.nknews.org/2022/09/north-korea-and-russia-agree-to-resume-rail-traffic-provincial-government-says/>(2022.09.13. 검색)

유럽, 러 대신 아제르産 가스 수입

그림.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왼쪽)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오른쪽)



자료: <https://az.trend.az/azerbaijan/politics/3640281.html>

■ 일함 알리에프(İlham Ə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9월 1일 이탈리아 공식 방문^{a)}

- 방문 일정에는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이탈리아 총리,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회담, 경제신문사 <일 솔레 24 오레(Il Sole 24 Ore)>와의 인터뷰,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 싱크탱크인 <유러피언 하우스 암브로세티(European House Ambrosetti)>가 주최한 체르노비오(Cernobbio) 포럼 연설이 포함되었음. 연설 주제는 ‘유럽 에너지 안보에서의 아제르바이잔의 역할’이었음
- 알리에프 대통령 연설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의 하나로 올해 완공 예정인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커넥터(Greece-Bulgaria Interconnector),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를 연결하는 이오니아-아드리아 파이프라인(Ionian-Adriatic Pipeline) 파이프라인 연계를 통한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출 가능성과 최근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1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가스 공급 증가 요청을 받았다는 점이 포함됨
- 한편, <일 솔레 24 오레>지와의 인터뷰에서 알리에프 대통령은 올해 가스 수출량을 220~30억 입방미터 수준으로 높일 것이며, 이탈리아 시장에만 100억 입방미터 규모의 가스를 수출할 계획을 밝혔음. 이를 위해선 기존 트랜스 아나톨리안 파이프라인(Trans Anatolian

Pipeline, TANAP)의 공급량 증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한편, 트랜스 아드리아틱 파이프라인(Trans Adriatic Pipeline, TAP)이 2020년 개통된 이래 유럽은 135억 입방미터 규모의 가스를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입하고 있음

- 또한 알리에프 대통령은 드라기 총리,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아제르바이잔-이탈리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더욱 넓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올해 4월에 아제르바이잔과 이탈리아 간 파이프라인 확장 실무그룹 협상 진행^{b)}

- 이미 올해 4월 2일 페르비즈 샤흐바조프(Perviz Sahbazov)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 장관과 루이지 디 마이오(Luigi Di Maio)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진 간 회의가 아제르바이잔 ADA 대학교에서 개최된 바 있음
- 디 마이오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협력 발전에 TAP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샤흐바조프 장관 또한 TAP을 통한 가스공급의 다변화와 원유 수입 분야에서 이탈리아와의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TAP의 확대는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유럽 전체 공급량 또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아제르바이잔 측은 TAP의 확대를 통해 10%의 수소 혼합물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회의에 참여한 이탈리아 기업들에게 ‘녹색 수소’의 유럽 수출도 포함되어 있기에 타당성 평가를 요청하기도 하였음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az.trend.az/azerbaijan/politics/3639753.html> (2022.9.14. 검색)
- b) <https://minenergy.gov.az/az/xeberler-arxivi/azerbaycanin-energetika-naziri-ile-italiyanin-xaric-i-isler-ve-beynelxalq-emekdasliq-naziri-tap-in-genislendirilmesini-muzakire-edibler> (2022.9.14. 검색)



주요 통계



표. 2022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1/2022 증감율**
극동지역	14.4(-2.0%)	5.5(-1.7%)	19.9	-1.9%
북극해	2.4(-5.2%)	5.3(+35.8%)	7.7	+4.8%
발트해	8.4(-15.6%)	12.2(+13.3%)	20.6	-0.2%
아조프-흑해	9.5(+0.9%)	11.2(-1.8%)	20.7	-0.6%
카스피해	0.3(-11.9%)	0.1(-40.7%)	0.4	-30.6%
합계	35(-5.4%)	34.3(+4.1%)	69.3	-0.5%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32107/> (2022.8.3.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30680/> (2022.8.3.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39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14000 - 벨고로드주	2.28	0.1
				17000 - 블라디미르주	628.66	216
				20000 - 보로네시주	3.57	0.17
				24000 - 이바노보주	1.24	0.03
				28000 - 트베리주	2.92	0.05
				29000 - 칼루가주	1680.07	572.59
				34000 - 코스트로마주	39.8	17.96
				38000 - 쿠르스크주	95.93	12
				42000 - 리페츠크주	283.35	48
				45000 - 모스크바시	18719.91	6609.58
				46000 - 모스크바주	12876.54	5400.64
				61000 - 라잔주	87.49	40.01
				66000 - 스몰렌스크주	2180.96	974.78
				70000 - 톨라주	0.41	0.1
				78000 - 야로슬라블주	61.3	16.46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5.4	0.02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056.24	165.01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7120.37	2255.87
				41000 - 레닌그라드주	2255.66	418.36
				49000 - 노브고로드주	478.57	29.13
				58000 - 프스코프주	149.08	25.21
				86000 - 카렐리야공화국	0.64	0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5.81	0.07
				18000 - 볼고그라드주	435.69	141.28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3119.05	1069.74
				33000 - 키로프주	57.66	18
				36000 - 사마라주	477.91	122.44
				56000 - 펜자주	200.49	41.61
				57000 - 페름변강주	114.84	38.83

				63000 - 사라토프주	1000.9	451
				73000 - 울라놉스크주	215.05	50.69
				80000 - 바시키르공화국	0.08	0
				88000 - 마리엘공화국	107.49	20.81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3135.72	1792.89
				94000 - 우드무르크공화국	267.63	71.81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641.63	191.72
				71000 - 튜멘주	19.75	0
				71100 - 한티-만시자치구(튜멘주)	2.18	0.04
				75000 - 첼랴빈스크주	244.43	14.51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237.41	95.18
				25000 - 이르쿠츠크주	329.01	93.56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153.06	469.51
				52000 - 옴스크주	5.86	0.7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5085.19	3370.44
				08000 - 하바롭스크 변강주	830.68	504.26
				10000 - 아무르주	0.96	0.02
				30000 - 캄차트카 변강주	462.11	176.61
				44000 - 마가단주	2.27	0.89
			08-북카프카스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129.93	48.08
				07000 - 스타브로폴 변강주	61.04	19.15
		11	01-중앙연방관구	14000 - 벨고로드주	2.38	0.09
				17000 - 블라디미르주	21.36	7.5
				20000 - 보로네시주	395.1	28.6
				29000 - 칼루가주	1090.06	322.19
				34000 - 코스트로마주	644.2	506
				45000 - 모스크바시	24663.32	8351.73
				46000 - 모스크바주	13518.34	4650.58
				66000 - 스몰렌스크주	2839.54	1606.71
				78000 - 야로슬라블주	1.45	0.01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996.11	114.58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1373.17	3982.22
				41000 - 레닌그라드주	2697	547.59
				47000 - 무르만스크주	40.99	1.07

				49000 - 노브고로드주	127.11	10.85
				56000 - 펜자주	1341.82	307.1
				58000 - 프스코프주	240.87	46.76
				86000 - 카렐리야 공화국	0.1	0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40.98	0.44
				18000 - 볼고그라드주	717.94	210.8
				60000 - 로스토프주	493.74	10.91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3638.07	1119.76
				33000 - 키로프주	230.87	98
				36000 - 사마라주	361.41	151.77
				57000 - 페름 변경주	40.02	2.01
				63000 - 사랴토프주	1.51	0.02
				73000 - 울라놉스크주	752.84	466.47
				80000 - 바시키르 공화국	20.98	0.53
				88000 - 마리엘 공화국	502.15	108.51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1567.1	786.15
				94000 - 우드무르트 공화국	77.41	7.16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638.14	270.41
				71000 - 튜멘주	1.89	0.01
				71100 - 한티-만시 자치구 (튜멘주)	0.61	0.01
				71140 - 야말로-네네츠 자치구(튜멘주)	0.41	0.28
				75000 - 첼랴빈스크주	395.03	9.2
			06-시베리아연방관구	01000 - 알타이 변경주	1.66	0.13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1546.68	802.63
				25000 - 이르쿠츠크주	297.39	102.28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286.53	508.98
				52000 - 옴스크주	119.93	43.75
				69000 - 톰스크주	432.01	230.3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4570.3	2938.38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63.01	74.33
				10000 - 아무르주	52.9	37.98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81.86	81.28
				44000 - 마가단주	1.46	0.82
				64000 - 사할린주	156.75	52.96

				77000 - 추코트카 자치구	0.02	0
				14000 - 벨고로드주	0.97	0.02
				15000 - 브란스크주	984.27	469
				17000 - 블라디미르주	98.11	36.15
				24000 - 이바노보주	7.47	0.1
				28000 - 트베리주	5.12	0.04
				29000 - 칼루가주	1358.75	426.44
				42000 - 리페츠크주	72.54	20.84
				45000 - 모스크바시	23398.52	7277.76
				46000 - 모스크바주	11785.06	4702.16
				54000 - 오를주	210.41	18.48
				61000 - 라잔주	51.2	20.35
				66000 - 스몰렌스크주	1466.98	829.66
				68000 - 탐보프주	298.18	61.91
				78000 - 야로슬라블주	89.12	19.7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0.14	0.02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809.47	88.97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9849.26	3329.67
				41000 - 레닌그라드주	2565.96	413.61
				49000 - 노브고로드주	303.12	19.85
				58000 - 프스코프주	2.27	0.41
				86000 - 카렐리야 공화국	0.55	0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4.32	2.37
				18000 - 볼고그라드주	135.22	36.64
				35000 - 크림공화국	0.25	0.01
				60000 - 로스토프주	319.43	26.89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4937.34	1637
				33000 - 키로프주	150.56	53
				36000 - 사마라주	117.15	25.5
				56000 - 펜자주	304.4	61.27
				57000 - 페름 변경주	0.06	0
				63000 - 사라토프주	1133.51	464.02
				73000 - 울라놉스크주	172.56	30.78
				80000 - 바시키르 공화국	590.83	289.02

				89000 - 모르도비아 공화국	25.8	12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3487.33	1935.73
				94000 - 우드무르트 공화국	104.43	25.64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990.77	356.68
				71000 - 튜멘주	29.72	2.16
				71100 - 한티-만시 자치구	0.07	0
				75000 - 첼랴빈스크주	184.37	10.76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974.74	498.68
				25000 - 이르쿠츠크주	18.41	0.04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443.71	637.05
				52000 - 옴스크주	70.85	24.87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6137.53	4112.74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066.32	577.84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95.98	87.03
				44000 - 마가단주	3.78	1.32
				64000 - 사할린주	44.7	11.86
			08-북카프카스연방관구	07000 - 스타브로폴 변경주	236.77	57.21

* 주: EAEU 코드 39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8.2.검색\)](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8.2.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42	가죽 제품; 하네스·안장 제품; 여행 물품, 가방 및 관련 물품, 동물의 내부 장기에서 추출한 제품 (누에나방 분비실 제외)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0.43	0.01
			04-볼가연방관구	36000 - 사마라주	0.04	0
				57000 - 페름변강주	0.26	0.01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45	0.02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32	0.05
43	천연 및 인조 모피; 모피 제품들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6.69	0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62	5.04
			08-북카프카스연방관구	82000 - 다게스탄	1.57	0.91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8.61	0
44	목재 및 목재 제품; 숯	10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290.34	356.4
			02-북서연방관구	19000 - 볼고그다주	689.1	1270.19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212	2396
				41000 - 레닌그라드주	487.75	890.74
				49000 - 노브고라드주	585.84	712.53
				86000 - 카렐리아공화국	100.26	97.88
				87000 - 코미공화국	493.64	232.32
			04-볼가연방관구	33000 - 키로프주	484.18	245.51
				57000 - 페름변강주	0	0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27.02	21.69
				71000 - 튜멘주	185.9	112.71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319.31	408.57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2145.14	5464.12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71.17	245.7
				52000 - 옴스크주	57.3	45.5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233.87	4177.83
				08000 - 하바롭스크 변강주	4259.66	21444.46
				64000 - 사할린주	153.32	302.27
		11	01-중앙연방관구	34000 - 코스트로마주	31.78	22.56
				45000 - 모스크바시	0	0

				46000 - 모스크바주	613.01	847.63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36.97	75.48
				19000 - 볼고그다주	575.2	1039.66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039.88	2024.89
				41000 - 레닌그라드주	385.49	762.84
				49000 - 노브고라드주	1160.34	1261.06
				58000 - 프스코프주	156.39	252.64
				86000 - 카렐리아공화국	93.23	155.29
				87000 - 코미공화국	420.98	231.08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3.7	22.48
			04-볼가연방관구	33000 - 키로프주	832.51	534.71
				57000 - 페름변강주	48.3	45.92
				92000 - 타타르스탄	32.5	47.82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152.3	159.67
				71000 - 튜멘주	357.36	266.99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340.55	495.02
				25000 - 이르쿠츠크주	2189.37	4849.75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64.75	121.75
				52000 - 옴스크주	82	68.2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213.02	3863.27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2850.36	9843.22
		12	01-중앙연방관구	28000 - 트베리주	98.43	162.82
				45000 - 모스크바시	74.48	117.1
				46000 - 모스크바주	323.09	370.81
			02-북서연방관구	19000 - 볼고그다주	389.32	655.81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269.33	3009.35
				41000 - 레닌그라드주	477.73	944.49
				49000 - 노브고라드주	1014.68	1366.08
				86000 - 카렐리아공화국	233.84	450.06
				87000 - 코미공화국	676.83	348.66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23.38	123
			04-볼가연방관구	33000 - 키로프주	975.88	638.2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220.34	298.79
				71000 - 튜멘주	49.54	45.06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357.12	738.54
				25000 - 이르쿠츠크주	2428.57	5650.52
				32000 - 케메로보주	7.98	22.3
				52000 - 옴스크주	72.81	45.5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376.76	4078.58
				08000 - 하바롭스크 변강주	2387.85	12442.44
				64000 - 사할린주	171.75	505.6

* 주: EAEU 코드 42~44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8.2.검색\)](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8.2.검색))